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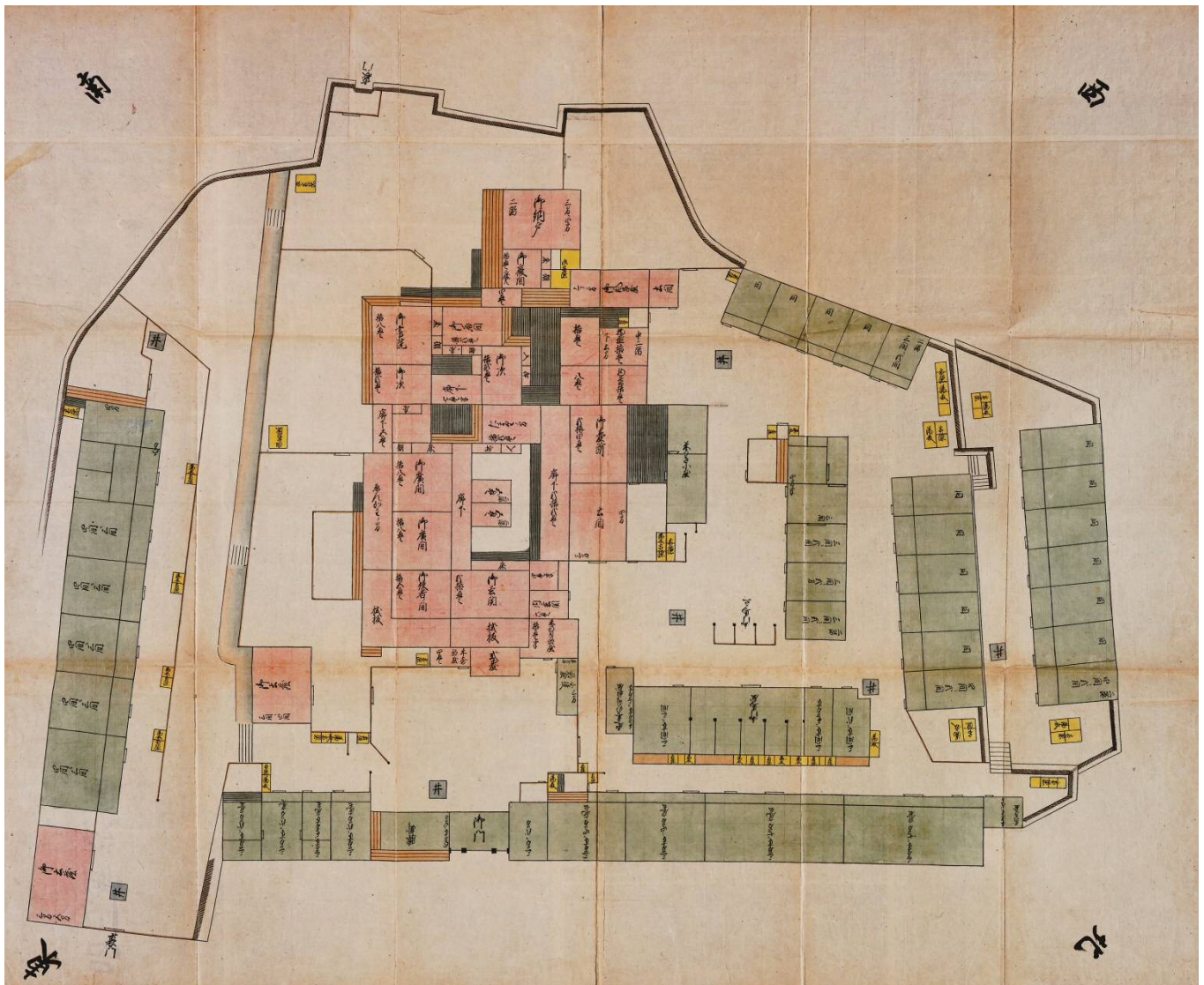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시나가와 고텐

‘고텐야마’라는 명칭의 유래

‘고텐야마’라는 명칭은 17세기 초기에 시나가와 고텐이라 불리는 쇼군의 저택이 마련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시나가와에는 매사냥을 할 장소가 있어서 시나가와 고텐이 휴식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역대 쇼군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방어 거점이기도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도쿠가와 이에미쓰와 시나가와 고텐 역대 쇼군 중에서 가장 자주 시나가와를 찾은 이는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였습니다. 다도회나 매사냥, 열병식 등 막부의 중요 행사 때 시나가와를 찾았습니다. 방문 횟수는 18년간 200회 가까이 되며, 에도 주변에 온 중에서는 가장



▲시나가와 고텐 도면(시나가와 역사관 소장)

횃수가 많습니다. 다쿠안 소호가 쓴 편지에는

「시나가와는 경치가 좋아서 가끔 피로를 풀러 찾는다」라는 이에미쓰의 발언이 적혀 있는데, 이에미쓰 본인이 좋아하여 시나가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쿠안이 초대 주지를 맡는 도카이지 절 건립을 이에미쓰가 제안한 것도 시나가와 고텐에서 열린 다도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에미쓰는 기타시나가와 이나리샤(지금의 시나가와 신사), 묘코쿠지 절(지금의 덴묘코쿠지), 조린지 절(지금의 라이고인 사원) 등 시나가와의 다른 장소도 방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묘코쿠지를 여러 차례 찾았고, 1634년에는 무너진 건물을 재건했습니다.

고텐야마에서의 대규모 다도회

시나가와 고텐은 1633년에 열병식이 열렸을 때만 해도 가건물이었으나, 1636년 5월 21일에 열린 다도회 때는 숲에 둘러싸인 건물이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미쓰의 시대에 시나가와에서 열린 다도회는 이에미쓰가 주최한 것을 포함해 22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던 것은 1640년 9월 16일에 열린, 조후번(지금의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주변) 번주 모리 히데모토가 주최한 다도회입니다. 이는 이에미쓰를 비롯해 이에미쓰의 종신, 도쿠가와 문중, 여러 다이묘를 초청한 대규모 다도회였습니다. 이처럼 다도회에는 유력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적인 의제도 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다도회에서 물을 끓이는데 사용한 차솥(茶釜)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도요코토 신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702년의 화재와 그 영향

시나가와 고텐은 1685년 8월에 수리되었으나, 1702년 2월 11일의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시나가와 고텐은 같은 해 8월 14일에 폐지되어, 이후 재건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화재로 이에미쓰가 재건한

묘코쿠지의 오층탑이 소실되는 등
시나가와에서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 고텐야마는 벚꽃 명소로서
꽃구경객으로 붐비는 행락지가 되어,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시나가와 고텐 터

시나가와 고텐의 소재지는 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4초메에 있는 호텔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1845년 9월의 사료에는,
약 14×11미터 범위에 시나가와 고텐의
주춧돌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나가와 고텐이 소실된 지 약 150년이
지났지만, 유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차술(茶釜) (시모노세키 도요코토 신사 소장)